

기부금 약속 안지킨 여수해상케이블카...지역민들 뿔났다

2015년분 첫해만 내고 운행허가 후 태도 돌변...3년치 20억원 미납 업체-여수시 소송전...돌산 7개단체 '파렴치 기업 운영 중단' 촉구

여수해상케이블카가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와 약속한 최소한의 기부금 협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해상케이블카 업체는 "2014년 여수시와 체결한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담당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여수시는 업체가 약속한 약정을 근거로 오동도 입구 사유지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 및 기부체납 후 운영 조건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내줬다.

당시 주차장 미확보 등 조건미비로 전남도 허가를 받지 못했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 행정지원원을 통해 2014년 12월 첫 운행 시작 후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대박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업체는 약속과 달리 운영 첫해인 2015년분 기부금 8억3379만원에 대해서만 약속대로 납부했고 전남도에서 정식 운행허가를 얻은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실제 해상케이블카는 2016년 5월 전남도에서 사업 준공을 받은 후 약속을 이행



여수 자산공원과 돌산을 잇는 여수해상케이블카.

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등 공익기부를 미뤘다.

이에 지난 2017년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속을 이행

하라'며 제기한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201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

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해야한다"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씩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이후 2016년 분 기부금은 강제 기탁(공탁금)됐지만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9억 2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전례 없는 기만행위에 지역민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돌산주민들(돌산연합청년회 등 7개 단체 대표)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여수시에 약속을 파기한 배은망덕한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돌산지역 주민 대표들은 입장문에서 "2014년 부도 직전이었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의 지원과 시민들 그리고 돌산주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현재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며 "자발적 기부 약속을 하고도 5년이 지난 지금에 강압에 못 이겨 공익기부를 했다며 담당 공무원까지 고소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스스로 파렴치한 기업이라

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국장은 "그동안 돌산주민 등 시민들이 교통난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해 온 결과 해상케이블카가 막대한 수익과 함께 국내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3.3%를 기부하는 목포 케이블카와 달리 자체 장학재단 설립 등 말도 안되는 핑계로 공금을 계속 부린다면 전남도 허가조건과 다른 현 시 지역 주차장 운영 상황 등을 통해 운행 허가를 당장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기부금 징수 노력을 못했다"며 "어떤 형태로든 약속한 것은 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케이블카 축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 한 만큼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 새 특급호텔 개관 눈앞...여수관광 활성화 기대

'호텔 JCS' 내년 3월 정식 오픈

여수에 새 특급호텔이 개관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특급호텔은 처음이다.

박람회 성공이후 국내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한 여수시에 이번 특급호텔 개관 등 고급 숙박시설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역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돌산을 우두리 일원에 들어설 '호텔 JCS'(조감도)는 지상 12층, 객실 151실 규모의 특급호텔로 개관 전 시범운영(12월 말)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남해안 최고 관광도시 도약으로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해 진 여수에 최고급 호텔을 내세운 호텔 JCS는 기존 호텔보다 넓은 규모의 객실과 지역 최대 규모의 온수풀 수영장, 대형컨벤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

특히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 오션뷰에서는 국내 최고의 세프가 호텔 JCS만의 프렌치요리와 이태리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여기에 계절 및 테마에 맞는 프로모션으로 '식도락' 여행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특급호텔 개관은 관광시장의 급성장과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에 나선 여수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주 총지배인은 "남해안권 최고 수준의 호텔에서 아름다운 일몰, 일출을 즐기며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쉼'이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탄력

기재부 예타 조사 면제

국비 676억원 투입

하루 처리용량 3만㎡ 늘어

중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기존보다 늘어나게 됐다.

여수시는 국비 676억원이 투입되는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돼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 밝혔다.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시설 처리용량을 1일 13만5000㎡에서 16만5000㎡로 3만㎡ 늘리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초 공사를 시작해 2022년 하반기 시설을 시험 가동하고, 2023년 초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여수국가산단 내에 있는 GS칼텍스 등 16개 기업이 2025년까지 9조5000억원을 투자해 공장 신·증설을 추진함에 따라 1일 폐수 발생량이 3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오봉 여수시장 등은 여러 차례 환경부

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예타 면제로 산단 대규모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폐수처리시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가산단 공장 신·증설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비 69억원이 반영돼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자랑스런 기업인 선정

김중휘 제일이앤씨·정중섭 공영엔지니어링·김미선 아라움 대표

여수시를 대표하는 자랑스런 기업인이 선정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수문화회에서 열린 '2019년 여수시 자랑스런 기업인 시상식'에서 김중휘 (주)제일이앤씨 대표와 정중섭 공영엔지니어링 (주) 대표, 김미선 (주)아라움 대표가 선정됐다.



지난 2일 여수문화회에서 열린 '2019년 여수시 자랑스런 기업인' 시상식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휘 (주)제일이앤씨 대표, 정중섭 공영엔지니어링(주) 대표, 권오봉 여수시장, 김미선 (주)아라움 대표.

알려졌다.

김미선 아라움 대표는 2013년 직원 7명 연매출 1억 원으로 시작한 튀김식품 사업을 직원 24명 연매출 60억 원까지 늘린 성과를 인정 받았다.

한편 여수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여수를 빛낸 자랑스런 기업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읍면동장, 기업 및 경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자랑스런 기업인을 추천받아 지난달 22일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올해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가막만 생산 피조개 EU 위생 기준 적합

EU 위생 기준 적합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여수시 가막만에서 생산되는 피조개(사천)가 EU(유럽연합) 위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가막만에서 생산되는 피조개를 대장균과 살모넬라, 패류독소 등 안전성을 조사했으며 A등급이 나왔다.

EU는 패류를 A, B, C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A등급은 곧바로 출하가 가능하지만 B, C등급은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피조개는 9303t으로 이중 70%에 해당하는 6492t이 중국과 일본에 수출됐다.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가막만이 굴에 이어 피조개까지 EU로 수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만간 EU로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국지도 22호선·해안가 일부 경관지구 지정키로

여수시는 국가지원 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와 해안가 290만㎡의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주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술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골

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돌산읍 방죽포~소울 해안가 등이다.

이 지역은 건물 높이가 3층, 12m 이하로 한정되고, 공장이나 묘지 관련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여수시는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02 영신패키지 (200명) 1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MUDEUNG PARK HOTEL & RESORT

예약문의 062-226-0011